



보도시점 2026. 4. 24.(금) 15:30 배포 2026. 4. 24.(금) 15:30

구윤철 부총리, “글로벌 초혁신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할 것을 당부”

- 반도체 호황 등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, 기술혁신과 주도권 경쟁에 나설 필요
- 정부는 금융·세제·규제 혁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

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.24(금)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, LG,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.

< 부총리 - 주요 기업 사장단 간담회 개요 >

- ▶ 일시 및 장소: '26.4.24.(금) 14:00~15:00 / 정부서울청사 1018호 회의실
- ▶ 참석자: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,
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, 황무연 SK하이닉스 부사장,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,
김재문 LG경영연구원장,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

구 부총리는 “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 등 대외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,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1/4분기 GDP 속보치가 전기대비 1.7%를 기록하면서 2020년 3/4분기 이후 5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”고 설명하면서, 이에 기여한 우리 기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, “위기시 우리 기업인들은 항상 든든한 후원군이였다”고 강조하였다.

구 부총리는 “우리 기업들이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, 글로벌 초혁신 기업으로 도약하여 우리 경제에 제2·제3의 반도체 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주기”를 당부하였다.

한편, 구 부총리는 “일부 기업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있다”고 언급하면서, “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AI 등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1등 제품과 서비스로 우리 경제의 파이 자체를 키워야 하는 때이며 기업들이 과거에도 보여주었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때임”을 강조하였다.

구 부총리는 각 기업들의 투자와 미래 대응 노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, “정부는 금융·세제·규제 혁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언급하였다.

재정경제부	기업환경과	책임자	과 장	장인주 (044-215-46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진 (jeongjin11@korea.kr)

